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양 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는 대선 기간 클럽이나 거리에서 수많은 애가들을 쏟아냈다.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를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답론을 지배했다. 지지자들은 1970~80년대 세계화 정책이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했다고 불평했다. 굴목산업이 해외로 빠져나간 자리에 정보통신(IT)산업이 들어왔지만 일자리는 화이트칼라가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한반도 안보 문제와 관련된 트럼프 당선자의 지배 담론은 한미동맹, 방위비, 북핵 문제로 요약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 과정은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대선 공약에서 상호 모순점이 많다. 트럼프 당선자의 대선 공약과 공화당의 정경 정책 간에 충돌 부분도 있다. 트럼프 당선자의 실리주의와 정책 참여 예상자들

트럼프 행정부의 '선이익, 후동맹' 전망

들의 이념주의 간에 갈등도 예상된다. 트럼프 당선자는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한다. 동맹도 필요하지만 미국의 국가 이익을 중시한다. 공화당은 '미국의 부활'을 주장한다. 동맹 강화를 통해 미국을 부활시키겠다는 것이다. 국제무역이 곧 미국 이익이라는 인식을 가진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과정 참여 예상자들은 '강경 보수적 성향'을 지닌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 마이클 폴린(Michael Flynn), 부보좌관 내정자 캐슬린 맥파랜드(Kathleen McFarland), 유력한 국방장관 후보자 제임스 매티스(James Mattis) 등은 네오콘이라고 불리는 신보수주의자들이다. 네오콘은 군사력이 국력의 원천이고 미국의 패권 질서 유지를 위해 선제 공격을 포함한 적극적 군사 개입을 강조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 노선은 '실리주의'로 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자의 관심도는 국가 이익, 동맹 협력, 국제 제기 관심 순이다. 한미동맹의 역할은 유지하되 현안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동맹의 역할은 대북 억제·대중 견제·한미일 공조 체계 구축이다. 주한미군의 방위비는 동맹의 현안 문제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주장한다.

안보의 경제적 접근이 예상된다. '선이익, 후동맹'의 관점에서 주한미군의 방위비 증액을 강력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북핵 불용의 원칙은 확고하지만 수단은 온탕 냉탕이 예상된다. 트럼프 당선자는 대화를 통해 핵종결부터 시작해야 함을 내비친다. 정책 과정 참여 예상자들은 압박을 통한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를 강조한다. 트럼프 당선자와 정책 참여 예상자들은 중국의 대북 압박론에 대해 이견이 없다.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 문제 접근 시나리오는, 첫째로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실패 평가 공유, 둘째로 대화와 압박의 병행 전략, 셋째로 대화로 동결부터 시작, 넷째로 북한의 합의 위반 시 군사적 옵션 등으로 예상된다.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에 대한 북한의 태도는 신중하다. '다음 기 대통령 트럼프'의 표현만 있고 구체적인 당선 사실 보도는 없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인 '전략적 인내'의 실패를 부각시킨다. 11월 11일 자 북한의 인터넷 매체 '우리 민족끼리'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파산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당선자 측에게 정책 전환을 우회적으로 촉구하면서 기대를 표하기도 한다.

조선중앙통신 11월 10일자 논평에서

'제임스 클라퍼 미 국가정보국장의 북핵 정책 실패 발언을 부각시키면서 대북 적대시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조선신보 11월 18일자 메아리 코너에서는 '트럼프 공약, 상식적이고 타당한 주장'이라고 평가했다. 북한과 미국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11월 18~19일 트랙2 회의를 개최했다. 탐색적 대화이지만 북한은 트럼프 측과의 직접적인 접촉에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월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후 6개월이 중요하다. 김정은 위원장은 내년 자신의 생일과 김정일 출생 75주년, 김일성 출생 105주년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국내외의 안정이 필요하다. 수면 위에서는 수사력을 동원한 기싸움을 하면서도 수면 아래에서는 국면 전환을 위한 탐색적 대화에 나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체제 및 존엄 문제에 자극을 한다면 6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통해 맞대응 무력시위 가능성도 있다.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 한미동맹은 상호 존중하는 가치동맹으로 발전해야 한다. 방위비는 과하면 줄이고 부족하면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는 최종적이고 대화의 시작은 핵 동결부터 해야 한다. 판문점 연락사무소의 정상화가 시급하다.

종교칼럼



양 흥  
서광교회 협동목사

성탄절을 맞는 사람들

교한 묵화로 구라파를 여행할 때 독일 쾰른에 있는 대성당을 가 볼 수 있었다. 고딕 건물로 세계 최대였다. 이곳에 세 박사의 유골이 들어있는 관이 안치되어 있었다. 로마시대인 326년 콘스탄틴 대제의 모후(母后) '헬레나'가 콘스탄틴의 소피아 대성전에 안치했다가 1차 십자군 때에 이태리 밀란 대성당에, 그 후 1164년 황제 바바루사 1세가 민란을 정복하고 유골을 쾰른 대주교에게 선물로 준 것이라 한다.

하여간 이런 박사, 왕, 지혜의 인(人) 학자에 의해 첫 성탄이 경축되어 왔다는 사실은 목자와 대조적인 또 다른 의미가 크다. 성탄의 이 기쁜 소식이 목자에게서부터 관직에 이르기까지, 들에서부터 왕궁에 이르기까지, 가난한 자로부터 부자에 이르기까지, 소박한 사람에게서부터 찬란한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후손의 자에서 유식한 자에 이르기까지, 촌에서부터 도시에 이르기까지 상하 좌우 만민에게 전해지고 경배됐다.

반면 팔레스틴을 약 150년간 통치한 왕조 헤롯 같은 사람이 이 성탄과 관계가 있다. 자기도 예수께 경배하겠다고 했는데 내심으로는 시기와 살기가 가득한 사람이었다.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주변 두 살 이하의 남아들을 모두 학살했다. 구약 때 선거에서 선택을 강요받아 왔을 때를 이기관들도 있다. 이들은 후일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받도록 주역을 담당했던 '회절 한 무덤', '목사의 자식'같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다. 청사에 그 이름이 빛날 뻔 했던 사람이 그만 탈락된 것도 있다. 아가 예수가 자기 집에 태어났는데 방을 제공해 드리지 못하고 마굿간을 허용했던 여관집 주인의 경우다. 호적 정리하러 들어 다친 사람들로 한 뭉뚱 보느라고 기회를 놓친 것이다. 물질에 눈이 어두워 영적 호적, 영원한 생명 같은 것은 관심 밖의 일이었다.

21세기 오늘의 성탄절은 세계의 명절이 됐다. 성탄을 맞는 많은 사람들 속에, 아니 바로 우리 가운데 목자들 같은, 박사 같은, 헤롯 같은, 대제사장들 같은, 서기관 같은, 여관집 주인 같은, 여관 손님들 같은 사람들이 있다. 나는 어디에 속하는 사람인가? 추위, 가난, 고독, 피곤 속에서도 천사의 음성을 듣고 달려가 경배하고 감격하여 전하는 목자 같은 사람들인가?

천리의 별을 발견하고 암흑에서 빛을 따라 험한 길을 가며 모든 것을 희생하는 박사 같은 사람들인가? 마음속에 시가, 악독이 가득해서 경배 대신 아이들을 죽이고 결국 자기도 비참하게 죽는 현대판 헤롯이 아닌지? 성탄 축하, 예배, 신앙, 교회에는 관심 없고 가난, 질병, 전쟁, 이웃과 세상에도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

들이 있다. 개인주의 물질에만 몰두하는 여관집 주인 같은 내가 아닌가? 여관에 투숙했던 무관심의 사람들, 세상 모든 사람들은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피안의 화재로만 보는 사람들, 예수 탄생도 상관 없었던 무관심의 사람들, 나는 과연 무관심에 속한 사람 아닌가?

우리는 결코 돈에만 눈이 어두웠던 여관 주인이 될 수 없다. 눈으로만 글을 읽는 서기관일 수 없다. 무관심의 사람들은 더욱 아니다. 사람을 죽이는 헤롯은 더 더욱 아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탄을 축하하며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2천 년 전에 있었던 기념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예수를 내 속에 다시 탄생 시키는 것이다. 내가 예수 안에 새로운 탄생이 이루어진 것이다.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다. 불행이 행복의 촉박의 시작이요, 영생의 길이 열리는 순간이다. 2016년의 성탄을 기쁘고 즐겁게 맞이하는 온 인류에게 축복과 은혜, 그리고 평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원하자.

기고



안 병하  
광주과학기술원 명예교수·전 부총장

한국 미래 위해 지성인들이 뜻 모아야 한다

우리 국민의 교육수준은 세계 정상급인데, 정치인이 4류 저질의 행태를 꾸준히 보여왔고, 지금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따라서 성년 민심이 가라앉았다면, 다시 제자리걸음으로 회귀하지 않겠는가? 우리 국민은 보수 혹은 진보 정당이 내놓은 정강에 어떤 가치를 느끼지 못한 채 선거에서 선택을 강요받아 왔을 따름이다. 지난 선거에서는 북한의 친안함 격침과 연평도 포격에 따른 내부 여론상의 잡음이 중복 문제, 국정원 댓글 등과 맞물려 보수정당의 문제점에 반신반의하면서 표를 주었던 것이다. 북한의 대(對)한국 기본전략이 불변인데, 이에 대한 우리 역대 정권의 약방문은 사실상 무의미 자체였다. 평화상을 받을 만한 성과가 있었는가? 이후 진보정권도 퍼주기 식 대북정책이었다는 비판이 그치지 않는다. 다음 보수정권에서도 북한 무력도발에 속수무책이었고,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정당성 논란이 이어져 왔다.

이번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얼마 전까지 그토록 떠들어댔는데도 조종했던 김

철이었다. 국민의 분노가 행동으로 옮겨져 자자 그들이 이제야 내놓는 칼날이 부끄럽지 않겠는가? 검찰은 먼저 반성문을 내놓은 후 엄정히 앞으로 나가 주기를 바랄 뿐이다. 또한 정치인들은 누구보다도 크게 반성해야 한다. 많은 특정 정치인들의 금전관계는 항상 석연치 않다. 정황은 확실한데, 결정적 증거 미비로 무죄판정이 다 반사였다. 이를 통해 우리는 분노했고, 국가 품격의 추락에 부끄러움을 금지 못했다. 이번에는 국가 최고 권력마저 검찰이 나 특검 앞에서 이런 모습(모른다, 아니다, 기억나지 않는다)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자랑스러웠던 우리나라가 최고 권력 측근의 능력으로 한없이 추락해 부끄러운 나라가 되고 말았다. 그러나 성년 민심의 분출로 100만인인란 유례없는 대규모 시위에 나섰지만, 비폭력 평화적 집회를 깨닫지 못하며 무리한 저력을 보였기에, 그래도 우리의 내일에 밝은 희망이 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요즘 국민 앞에 선 대권 후보들이란 도대체 어떤 인물들인가? 말 잘하

거나 무리를 많이 거느리고 있어서인가? 선거판에 많이 기웃거렸다는 성격인가? 말 없지만 그 정도의 사라판단 잘하는 인물은 우리나라에 널려 있다. 시장판에 가서 악수하고, 대학교에나 들락거리면서 하찮은 설법이나 늘어놓는 아류가 되지 말기를 희망한다. 아무리 보아도 그들의 경륜에서 국가의 미래를 맡길만한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헌정 중단, 차기 선거 준비 등 국정 혼란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나 결코 서둘러 말고 우리 국가, 우리 사회의 치부를 면밀히 분석 판단하고, 우리의 자랑스러운 품성과 전통과 역량을 되살릴 수 있는 미래 비전을 찾아 세우자! 이를 말 말고, 미래가치관이란 찾기도 힘든 정치인들에게 말가지 말고, 일반 시민의 현명함이 분출돼야 한다. 권력과 돈과 명예를 탐하지 않는 불특정 다수의 뜻 있는 지성인들이 참신하고 진솔한 의견을 많이 내출 것을 제안한다. 호소한다. 빅데이터 지능정보 시대에 사는 우리는 많은 의견을 모아, 유가치한 대안을 반드시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社說

야권, 탄핵 교란 작전에 말려서는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오늘 본회의 표결은 일단 무산됐다. 당초 2월 처리나 9월 처리를 놓고 야3당 사이에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예상된 일 이긴 하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야권 공조에 균열이 생겨서는 안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어제 오후 국회 의원실당에서 회동, 탄핵안 일정 조율을 시도했지만 합의를 보지 못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동에서 추 대표와 심 대표는 '탄핵안 1일 발의 및 2일 본회의 표결'을 거듭 주장했지만, 박 위원장은 '9일 본회의 처리' 입장을 견지했다고 한다.

심 대표는 "9일 표결의 불확실성이 더 커져 비박계 설득도 어려운 데다 야3당이 주도해야 할 국면에서 비박계에 주도권을 넘겨주는 상황에 대해 몹시 유감스럽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발의가 목적이어서 안 되고 가결이 목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당장 탄핵을 추

진하지는 추 대표나 부결이 돼도 다시 탄핵을 추진하면 된다는 심 대표의 말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새누리당 비박(비박군)에게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선불리 발의를 했다가 부결되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박 위원장의 '비박계 설득이 먼저'라는 9일 처리안도 일리 있다.

어찌 됐든 야3당이 이처럼 서로의 의견 차이만을 노정한 채 탄핵 전선에 혼란이 생기면 청와대나 친박 세력의 교란 작전이나 여야 합의를 주장하며 버티고 있는 박 대통령의 술수에 말려드는 꼴이 아닐 수 없다. 회동이 끝난 후 국민의당은 5일 본회의 별도 소집 후 표결 방안 등 중재안을 다시 냈다고 한다.

야권은 이제라도 공조 체계를 회복하고 촛불 민심과 함께해야 한다. 흑시라고 당리당락에 얽매거나 대선 유불리를 따지는 가운데 대오가 흐트러지면 성년 민심은 언제 또 야권과 여의도로 향할지 모른다는 점을 새겨야 할 것이다.

광주 전통시장도 화재 대비 꼼꼼히 챙겨야

옛그저 대구의 전통시장인 서문시장 4지구가 한밤중 화재로 인해 잿더미로 변했다. 대구 화재를 계기로 광주 지역 전통시장은 어떤지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광주 시내 전통시장은 모두 31곳이다. 이 가운데 올 중소기업청 비상안전 담당관실이나 한국화재보험협회 등에서 화재 등급 판정을 받은 12개 전통시장 중 최하위 등급인 E등급에 해당하는 시장이 4곳이나 됐다.

문제는 지역의 전통시장 대부분이 개설된 지 30년 이상으로 시장 내 불길을 차단할 방화벽 역할을 하는 구조물이 없어 불길이 삼시간에 번지기 쉽다는 것이다. 또 시장 입구의 좌판이나 차량이 소방차 진입을 막고 있고 소화기는 점포 구석에 숨어 있는 곳이 많다.

본사 취재 결과 양동시장 중앙에 위치한 건어물시장과 수산시장 등은 고립된 공간인 데다 좁은 시장 통로로만

이동이 가능해 사실상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했다. 또 시장 곳곳 벽면에 전기 배선이 어지럽게 설치돼 있고 화재 진압용 스프링클러는 찾아볼 수 없었다. 소방서를 중심으로 화재 대비 훈련을 진행한다면 아마도 그 때뿐인 경우가 많다고 하니 서문시장 화재가 남의 일 같지 않다.

게다가 화재보험 가입도 제대로 돼 있지 않아 화재 발생 시 보상도 막대한 상황이다. 보험사들도 위험 부담이 큰 전통시장 보험 가입을 꺼리고 있는데 영세사업자들이 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통시장의 경우 시장별로 화재 리스크가 천차만별인 점을 감안해 정책성 화재보험을 도입한 뒤 차등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소방통로를 만들거나 확보하고 화재 예방과 불길을 차단할 수 있는 시설들을 하루빨리 설치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넙넙 큰 만큼 해탈도 크다'는 말이 있다. 정신적인 압박이 클수록 상황을 타개하려는 힘이 강해지고, 끝까지 물러서지 않는다면 결국엔 그만큼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문제는, 상황을 타개하려는 힘이 생겨나려면 안팎에서 적지 않은 정신적 압박이 있어야 한다는 점인데 '인간 정신의 정수'라고 불리는 예술에서만큼 이 말이 딱 들어맞는 분야는 없지 않은가 싶다. 민중화 시위가 최고조를 이뤘던 지난 1980년대, 전국의 집회현장마다 내걸려 시민들에게 투쟁 정신을 고취해 준 단 걸개그림의 비조이자 민중미술의 어머니로 불리는 독일작가 케테 콜비츠(1867~1945)의 삶을 보면 '불행과 고난이야말로 예술의 어머니'라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당시 유럽에서 가장 잔혹하게 민중들이 착취당하던 독일에서 태어난 케테는 처음엔 미술을 공부한 평범한 여성작가에 불과했다. 하지만 1893년 직조공 가족의 비참한 삶과 죽음을 다룬 하우프트만의 연극 '직조공'을 본 그녀는 자신의 내부에 감춰진 '사회 개혁과 변화'에 대한 열망을 깨닫게 된다. 이

연극에서 영감을 얻은 그녀는 연작 판화 '직조공의 붓기'를 발표하며 주목받는 민중작가로 거듭나게 된다.

'억압받고 착취당하면서도 호소할 곳 하나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민중을 위로하고, 또 일여 세우려는 예술의 길을 케테는 뒤돌아보지 않고 회화하지 않으며 똑바로 걸어갔다. 1차 세계대전에서 사랑하는 막내아들을 잃은 슬픔과 불행마저도 케테는 민중의 고통을 대변하는 예술로 승화시키며, 반전과 민중을 주제로 한 수많은 판화 작품을 만들어냈다. 케테의 작품처럼 시위 수단 걸개그림의 비조이자 민중미술의 어머니로 불리는 독일작가 케테 콜비츠(1867~1945)의 삶을 보면 '불행과 고난이야말로 예술의 어머니'라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당시 유럽에서 가장 잔혹하게 민중들이 착취당하던 독일에서 태어난 케테는 처음엔 미술을 공부한 평범한 여성작가에 불과했다. 하지만 1893년 직조공 가족의 비참한 삶과 죽음을 다룬 하우프트만의 연극 '직조공'을 본 그녀는 자신의 내부에 감춰진 '사회 개혁과 변화'에 대한 열망을 깨닫게 된다. 이

/홍행기 사회1부장 redplane@

<b>光 州 日 報</b>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程厚植</b>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b>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b>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2-9500)	기획관리국 (FAX 222-95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다 자 인 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회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사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독자투고·기고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환영합니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